

##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 [여름 눈("Summer Snow")]의 한글 자막에 나타난 오역 사례 연구

李左知子  
(경희대)

###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국정부의 대중문화개방에 따라 일본 가요, 가정용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이 해금됐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대중매체를 듣거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정책변화와 급진하는 IT산업의 변화로 최근에는 집에서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를 다운로드하여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처럼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자막이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 한다는 작업상의 면에서 본다면 문학작품이나 신문 등은 활자, 즉 문장을 번역한다는 점에서 정적인 작업이며 대부분이 전문가에 의해 번역되는 것에 반해 일본의 텔레비전 드라마의 번역은 대부분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나 반복하여 듣고 번역한다는 점에서 동적인 작

업이며 번역은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동호회(회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 동호회 회원에 의한 번역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sup>2)</sup>에 따르면 문학작품의 번역가, 이른바 전문가에 의한 일본 문학작품의 번역에도 오역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특히 일본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한국어 자막이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서 「여름 눈(Summer Snow)」<sup>3)</sup>의 한국어자막에 초점을 두고 오역의 유형에 따라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오역의 특징과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하기로 했다.

문학작품 번역에 나타나는 오역의 분석방법으로는 [어휘·문법·문체·문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상번역이라는 입장에서 일본어 시나리오와 한국어의 자막과의 대조라는 형태로 오역의 유형을 [단순한 어휘상의 오역·전문적용어의 오역·문체상의 의미의 오역·다른 문화에 관한 오역·대중영상상에 있어서의 오역]으로 나누어 분석 해 나갔다. 또 텔레비전의 특성상, 등장인물, 연기자의 말하는 속도(스피드)라는 면에서도 고찰 해 보았다.

## 2. 오역과 번역의 완성도

다른 문화의 언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 할 수 있게 문자로 타내는 작업

- 1) 구글 검색결과에 따르면, 거의 970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 2) 황경자, 2000, 「日本文學作品的 한국어 번역에 따른 諸問題-요시모토 바나나의 作品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77-87,
- 3) 일본 드라마 클럽, 자막제작(Korea.Com), 제1회에서 제11회까지의 구성으로 젊은이를 겨냥한 텔레비전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교통사고로 양친을 잃은 3남매(형 なつお, 남동생 じゅん, 여동생 ちか)를 중심으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남동생의 대입수험문제나 고등학생 여동생의 임신문제를 부모대신 해결해 나가는 장남인 주인공과 그 형제애를 그린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애인(ゆき)과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이다.

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역과 번역의 완성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단순한 오역은 별도로 하고 오역과 정확한 번역과의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번역의 완성도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번역이 한 언어(출발어)로 표현된 것을 의미와 문체상의 ‘등가(等價)’를 유지하면서 다른 언어(도착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등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완성도’의 정의도 달라진다.<sup>4)</sup>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연기자의 대사에는 있는데 한국어자막에 없는 낱말이나 생략된 말, 그리고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한국어번역을 오역으로 간주했다. 또한 번역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기술적 번역(의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는가)이 어떤 의미에서는 번역의 완성도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대사가 나오는 장면의 배경이나 분위기를 살리고 되도록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 3. 한국어자막 오역의 여러 사례

「여름 눈(Summer Snow)」의 시나리오가 없는 관계상, 일본어 대사는 연기자의 대화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sup>5)</sup>을 한국어번역의 자막과 대조해 보기로 했다.

#### 3.1 단순한 어휘상의 오역

여기에서는 단순한 어휘상의 오역으로 ‘잘못 들은 것’과 ‘말의 생략’의 사례를 들었다. 생략은 정확하게는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본어 대사에는 있으나 한국어 자막에는 생략되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휘상의 단순한 오역으로 간주했다.

4) 김순화·박혜경·김철수, 2003, 「韓日·日韓통역·번역의 세계」, 서울, 시사일본어사

5) 대본이 없기 때문에 일본어 대사는 필자가 글로 나타낸 것이다.

(1) なつお：8万と3千… 6百45? (第1回)

8만하고 3천원...6백5십?

(2) 警察：被害者はすべて年寄りや女性だ。(第2回)

피해자는 전부 나이든 여성이다.

(3) ゆき：スペシャル・ハンバーグ作って来たの。(第5回)

스페셜 햄버거를 만들어왔어.

(4) なつお：また、うるめいわし? (第1回)

또 매실장아찌?

(5) なつお：あのね。特にこのうるめいわしはいつになくうまいんだよね。(第9回)

특히 이 눈통명어리는 언제나 맛있단 말야~

이 (1)의 장면은 은행에서 주인공인 ‘なつお’가 은행원에게 매월 지불하는 돈을 봉투에서 꺼내어 세고 있는 장면이다. 단순하게 숫자를 잘못 들었는가. 잘못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2)는「年寄りや女性」를「年寄りの女性」로 잘못 들어서 한국어를「나이든 여성」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年寄りや女性」와「年寄りの女性」의「や」와「の」의 히라가나 한 글자를 틀렸을 뿐인데도 한국어 번역이 「노인이나 여성」이「나이든 여성」이 돼버린다.

(3)의 경우도 (2)와 유사한 오역의 예이다. 외래어인「ハンバーグ」는 한국어로는「햄버그 스테이크(hamburg steak)」를 의미하고, 일본어로「ハンバーガー」는 한국어의「햄버거」를 의미한다. 이경우도 (2)와 마찬가지로 어미의「ハンバーグ」의「グ」와「ガー」를 잘못 들었다고 여겨지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는 외래어에 대한 지식부족도 생각할 수 있다.

(4)와(5)의「うるめいわし」의 한국어 번역을 보면, 제1 회인 드라마가 시작했을 때의 대사인「うるめいわし」는 한국어자막에서는「매실장아찌」, 그 다음 회부터는「눈통명어리」로 번역됐다. 「うるめいわし」의 정확한 한국어번역은「눈통명어리」이다. 이 경우도 위의 (1)(2)(3)과 마찬가지로 잘못들은 것으로 추측

된다. 연기자의 말하는 속도가 빨라서 「うるめいわし」가 「う・め・し」가 들어있는 「うめぼし」로 들려 「매실장아찌」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うるめいわし」의 경우는 위의 (1)(2)(3)과는 다르게 텔레비전에 생선인 「うるめいわし」의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금세 「매실장아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회분부터는 「눈통명어리」로 정확한 한국어 자막이 나오지만 제1회분의 드라마 대사인 「うるめいわし」의 한국어 자막은 정정되지 않고 오역인 채 그대로이다. 이러한 화면과 대사를 잘 맞추어 보는 것도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ちか：ひろと、この野菜、はこんどいて (第5回)

히로토, 여기 테이블로 좀 옮겨줘.

(7) ひろと：俺がさ、頼りないばかりにお前には色々と辛い思いさせてしまったけど。(第3回)

내가...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8) ゆきの父親：ここんとこ、たてこんでて。午前様続いているからな。(第1回)

식구들은 다 잘 시간인데요?

(6)의 대사에는「野菜(야채)」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막인 한국어번역에는 생략되어있다.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히로토, (이) 야채, 테이블로 좀 옮겨줘.」이다. 이 장면에서 「野菜(야채)」라는 낱말을 생략하여 번역하여도 드라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대사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7)의 장면의 대사에서는 밑줄친부분인 「頼りないばかりに」와 「色々」가 생략되어 있다. 우선 「俺がさ、頼りないばかりに」의 한국어번역은 「내가 못나서」가 되고, 「色々」는 한국어로 「여러 가지로」가 된다. 그밖에 생략은 아니지만 「辛い思い」부분의 한국의 번역인데 자막과 같이 「힘들게 하다」로 번역하여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못나서 너를 여러모로 마음고생 시

켰지만,」으로 번역하는 것이 대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어 대사의 길이에 비해 자막의 한국어 번역은 그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번역에서는 화면이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에 따라 자막의 한국어번역을 생략하여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일본어 대사를 그대로 한국어 자막으로 바르게 번역하여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므로 화면이 바뀌는데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정확하게 번역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8)의 장면의 상황은 동료 형사가 선배 형사에게 술 한 잔 하러가자고 청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ゆきの父親(先輩の刑事)’가 사양하는 장면의 대사이다. 대사의 밑줄 친 부분인「ここんとこ、たてこんでて。」가 생략되어 한국어 자막이 나온다. 이것도 대사대로 번역을 하면「요즘 일이 밀려서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가는 일이 많아서 말이야...」가 된다.

이 경우도 (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면이 바뀌는데 시간적 제약을 그다지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략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대본이 없는 까닭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자신의 귀에 들린 대사를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과 연기자의 말하는 습관과 스피드에 의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2 전문적 용어의 오역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일본어의 어휘 문제가 아니라 일본어에 대한 지식, 관용구나 요리·식물 등의 전문적인 용어의 지식 부족에 의한 오역의 사례를 들어왔다.

(9) じゅん：鬼の霍亂 (第6回)  
도깨비의 일사병.

(10) ひろと：世の中は持ちつ持たれって言うじゃないか。(第9回)  
키워논 보람이 있다는 말도 있잖나요.

(9)의 「鬼の霍亂」의「霍亂」의 의미는 ‘일사병·한창 더울 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鬼の霍亂」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도깨비의 일사병」이지만, 이것으로는 한국인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鬼の霍亂」이라는 것은 ‘언제나 매우 건강한 사람이 어쩌다가 병이 난다’는 뜻이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건강한 자의 외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어 관용구의 의미와 똑같은 뜻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10)의 「키위는 보람이 있다」는 일본어로는 「育てた甲斐がある」의 의미이다. 「持ちつ持たれつ」의 의미는 “서로 의존하고 도와주므로 서로 함께 존속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어로는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상부상조하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10)의 한국어번역은 「이 세상은 상부상조라고 말하잖아요。」가 어울린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9)와 한국어오역의 원인은 일본어 관용구에 대한 지식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11) なつお：ゆきちゃん、ここ、座って。あじさいの座布団すわって。(第1回)  
유키창 . 이 꽃무늬 방석에 앉아.

(12) なつお：なんでお前、夕べからちゃんこ鍋するってゆってんだから。(第6回)  
뭐야? 어제 저녁부터 곱창전골 한다고 그렇게 일렀건만!

(13) なつお：そのあとは豆板醬(トーバンジャン)と甜麵醬(テンメンジャン)…どっちだったかな?(第9回)  
음…이다음은 말이야. 두부양념이란

(11)의 일본어 「あじさい」는 한국어로는 「수국」이다. 물론 단순히 「꽃무늬」라고 번역을 해도 드라마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수국」을 일부러 「꽃무늬」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번역자가 「あじさい」라는 식물명을 한국어로 모르는 까닭에 생긴 오역이라고 생각한다.

(12)의 「창코나베(ちゃんこ鍋)」라는 것은 원래 스모우사회 특유의 요리로서, 대량의 생선·고기·야채 따위를 굵직하게 썰어서 물에 끓여 폰스로 맛을 내서 먹는 전골요리를 지칭한다. 한국요리에는 「창코나베(ちゃんこ鍋)」와 같은 전골요리는 없고 또 「창코나베(ちゃんこ鍋)」속에는 곱창도 들어있지 않다.

한국의 「김치」나 일본의 「스기야키(すき焼き)」는 그 나라의 독자적인 요리

로서 그대로 고유명사로 외국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창코나베(ちゃんこ鍋)」를 문자 그대로 「창코나베(ちゃんこ鍋)」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다만 「ちゃんこ鍋」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창코나베(원래 스모우선수의 요리였다)」고 괄호 속에 간단하게 설명을 넣어준다면 한국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

(13)의 장면은 ‘なつお’가 감기에 걸린 애인 ‘ゆき’를 위해 「麻婆豆腐(마파두부)」를 만들고 있는 장면으로, 「豆板醬」과 「牯麵醬」이라는 중국요리의 조미료 이름이 나온다.

「豆板醬」은 누에콩 된장에다가 고춧가루를 첨가한 조미료이고, 「牯麵醬」은 밀가루로 만든 중국의 단맛이 나는 된장 조미료이다.

최근 들어, 중국요리의 조미료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슈퍼마켓 중화조미료 코너에 진열되게 됐다. 한국에서도 「豆板醬(두반장)」은 많이 알려졌지만 「牯麵醬(참면장)」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豆板醬」과 「牯麵醬」이라는 전문적인 낱말을 번역자가 알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가지 조미료를 「두부양념」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번역하고 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요리에 관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豆板醬」과 「牯麵醬」은 ‘豆腐料理’뿐만 아니라 중국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12)의 「창코나베(ちゃんこ鍋)」와 같이 고유명사 그대로 「두반장(豆板醬)」과 「참면장(牯麵醬)」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 3.3 문체상의 의미의 오역

여기에서는 단순한 낱말상의 오역이 아니라 문장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오역의 사례를 들었다. 이런 것들은 일본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번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역이라고 생각된다.

(14) ひろと：お前のこと好きになんきゃよかったよ。(第3回)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15) ゆき：ほんと、世話好きだね。(第9回)

매일 신세만 지고.

(16) なつお：命というものは誰もか手にできるものじゃないんだよ。(第4回)

생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건드릴 수 있는게 아니야.

(17) じゅん：惚れられてるね。兄貴。(第5回)

형, 완전히 반해버렸구나!

(14)의 장면 대사의 상황은 ‘ちか’의 애인인 ‘ひろと’가 ‘ちか’를 생각하면서 말한 대사이며 일본어 대사의 의미와 한국어 자막의 의미가 다르다. 바른 한국어 번역은 「너를 좋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이다.

(15)의 「世話好き」의 의미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상태). 또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 자막의 한국어번역인 「신세만 지다」의 「신세를 지다」는 일본어로는 「世話になる」의 의미이므로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사에서는 「ほんと(本当に)」가 「매일」로 번역됐으나 이 장면의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정말, 남(을) 도와 주는 것을 좋아하는구나。」가 된다.

(16)의 일본어 대사 속에서 「誰もか手にできる」의 부분의 한국어번역에 오역이 있다. 한국어의 「건드릴다」는 일본어로 「触れる、触る」、또는 「刺激する」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바른 한국어번역은 「누구나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가 된다.

(17)의 대사는 수동태의 문장이다. 일본어 문체의 특징으로는 수동태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위에 있는 대사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한국어 자막에서는 형인 ‘なつお’가 ‘ゆき’를 좋아하는 것처럼 번역됐지만 이 대사의 일본어 의미는 그와는 정반대이다. 따라서 위 대사의 바른 한국어번역은 「형한테 훌쩍 반했구나!」가 된다.

(18) ゆき：ちょうど、お孫さんに通帳を作ろうとなさっているお客さんがいらっして。(第5回)

운 좋게 계좌를 만들려던 손님이 계셔셔요…….

(19) なつお：あの。また。来月。(第1回)

통장과 도장 여기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 なつお：はんこは後で押しに行くって言ってたから。(第1回)

한자는 나중에 알려주러 가라고 했어요.

(18)의 장면은 소매치기 현장에 있던 ‘ゆき’가 그 때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의 대사이다. 자막의 한국어는 「운 좋게 계좌를 만들려던 손님이 계셔 서요…….」라고 되어있으나 고객(할머니)이 소매치기를 만났는데 왜 「운 좋게」가 됐는지 알 수 없다. 소매치기가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운 좋게」라고 번역을 한 것일까. 이 대사의 한국어번역은 「마침 손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려는 손님이 계셔서요.」가 된다.

(19)의 장면은 지불을 끝낸 ‘なつお’가 은행원에게 돌아가면서 말한 대사이다. 자막의 한국어에 ‘통장’과 ‘도장’이라는 낱말이 나오지만 대사에는 없다. 또 자막의 내용으로 본다면 은행원이 ‘なつお’에게 말한 대사로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반대이다.

이 장면을 대사에 맞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럼, 다음 달에 또 오겠습니다.」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20)의 장면에서도 번역자가 대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맘대로 번역한 것처럼 보인다. 「はんこ」는 한국어로는 「도장(인감)」이며 「はんこ(印鑑)を押し」는 「도장을 찍다.」이다. 그래서 「도장은 나중에 찍으러 간다고 말했거든요.」가 일본어 대사에 맞는 바른 한국어 번역이다.

이상과 같이 오역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번역자가 일본어 대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 못한 채로 번역한 경우이거나 연기자의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정확한 대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4 다른 문화에 관한 오역

각각의 문화·민족에게는 역사 속에서 배양된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문화 특유의 습관을 몸에 익히

면서 성장한다. 따라서 특유의 커뮤니케이션·스타일을 지니게 된다.<sup>6)</sup>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문화에 관한 오역이란, 그러한 어떤 민족(일본인)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역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일본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역의 예를 들어본다.

(21) なつお：きっと、天国のおやじもそういうよ。(第2回)

틀림없이 천국에 있는 부모님도 그렇게 말 할거야.

(22) なつお：いいですか。一番風呂というものは今日、一日、一生懸命働いた者が入るもんなんだよ。(第1回)

잘들어. 우선 목욕탕이란건 하루종일 일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23) ゆきの父親：ここんとこ、たてこんで。午前様続いているからな。(第1回)

식구들은 다 잘 시간인데요?

(21)은 주인공「なつお」가 「おやじ(아버지)」라고 말했는데 한국어 자막에서는 「부모님」으로 번역했다. 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내용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있으나 「なつお」가 「兩親」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태여 「おやじ」라고 말한 배경에는 이 가족은 아버지가 중심인(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발언권의 영향이 크다)가정이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부모님(兩親)」과 「아버지(おやじ)」는 단순한 낱말의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おやじ(아버지)」라는 낱말에서 그 일본인 가정 내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의 번역이다.

(22)의 「一番風呂」라는 것은 ‘지금 막 데워진 목욕물에 처음 들어가는 것. 또, 그 따뜻한 목욕물, 새로운 목욕물’을 의미한다. 원래 일본의 목욕문화는 서양과는 다르게 한사람 한사람 새로운 물을 욕조에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조에 물을 채우고 가족전원이 그 물을 사용한다. 이때 금방 물을 받은 욕조에

6) 池田理知子・灘光洋子外。2000。『多文化社會と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東京:三修社。

처음 들어가는 것은 밖에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 집에 머물다 가는 손님이 있을 경우는 손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바른 한국어번역은 일본어와의 문체의 위치를 바꾸어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목욕을 하는 거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른 한국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의 「午前様」란「御前様」<sup>7)</sup>를 빗대어 말한 것으로서 귀가가 밤 12시를 넘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장면의 한국어 번역은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가는 일이 많아서 말이야.」가 된다.

이와 같이 일본어를 잘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본인의 문화 습관을 잘 모르면 오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3.5 대중영상상의 오역

여기에서 말하는 대중영상상의 오역이란 문학작품이나 신문과는 다르게 대중영상 속에서도 특히 젊은이를 겨냥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사 속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나 비속어표현의 번역이 오역, 또는 한국어로서는 부자연한 표현의 사례를 들어본다.

(24) なつお：おれ、単細胞なんだよ。(第2回)  
맞아, 나 단세포야.

(25) なつお：そうかそうか、OK.OK.大OK (第9回)  
그래? 알았어, OK.OK. 왕OK

(24)의 「單細胞」라고 하면 일본어에서는 ‘단순해서 한 면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을 말한다. 이에 대한 한국어 자막은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

7) (1) 高位・高官인 사람, 또는高僧을 그 使用人이나 信者등이 높여서 하는 말.  
(2) 特히、大名나高祿의旗本등의夫人을높여서 하는 말. [(1)(2)모두, 二人称人代名詞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goo辭書(<http://dictionary.goo.ne.jp>)

「나 단세포야」로 했으나 부자연스럽고 한국어답지 않은 표현이다. 최근 들어 한국 젊은이들도 「단세포」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듣지만,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에게서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다. 이 장면의 일본어 「單細胞」라는 말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난 단세포적인 사람(인간)이야」라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상당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본다.

(25)의 「大OK」의 「大」는 접두어로 명사에 붙어서 ‘상태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OK」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외래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상회화 속에서도 연령층이 젊고 격이 없는 사이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사용하는 것 같다. 이 「大OK」의 한국어 번역을 보면 「왕OK」로 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명사 앞에 ‘왕’이 붙으면 「왕 언니」라던가 「왕 갈비」와 같이 ‘커다란 사람이나 물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므로 일본어와는 그 의미가 다르고 또한 한국어 표현으로도 적당하지 않다.

최근, 한국 젊은이에서 중년층 사이까지 가까운 사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OK바리(오케바리)」라는 낱말<sup>8)</sup>이 있다. 이 낱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겠어」라던가,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나오는 감탄사<sup>9)</sup>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 「OK바리(오케바리)」는 아직 정식으로 사전에도 실리지 않았고 표기도 애매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sup>10)</sup> 실정이지만 이 텔레비전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なつお’가 「大OK」라고 유머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그래, 알았어, OK, OK, OK바리」로 한국어 번역하는 것이 좀더 어울린다고 하겠다.

공개된 문학작품이나 신문 등의 번역에서는 이 「OK바리(오케바리)」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는 이러한 낱말의 사용은 허용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8) 어원은 영어의 「Okay Buddy」에서 유래되고 한국어 의미는 「알겠네,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설과 일본어의 「お決まり」에서 유래되어 한국어 의미는 「결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YAHOO 지식검색

9) NAVERN 지식검색

10) 오케바리라고 쓰기도 하지만 아직 정착된 것이 아니다.

#### 4. 맺는 말

이제까지 한국어 자막 오역의 여러 사례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오역의 특징과 그 오역의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오역의 주요 원인은 “잘못 듣는 것”과 “대사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듣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거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연기자의 대사를 몇 번이라도 들으면서 옮겨 쓴 후에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들은 것을 글로 옮겨 쓰지 않고 그대로 번역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원본이 없는 만큼 자신의 귀를 의지하여 낱말(대사)을 인식해야하고 일본어를 충분히 음미하여 한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역이 생기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본어의 전문적용어의 지식부족이나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부족도 오역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밖에 텔레비전 드라마의 번역은 연기자의 독특한 화법(버릇이 있는 말투)이나 연기자의 말하는 속도,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특성상, 화면이 바뀌는 속도에 따른 번역의 요령(문장의 길이 조절)이나 담화 중심이므로 생략 형이 많이 사용되거나 외래어나 신조어등도 많이 등장하는데 대사를 완전히 알아듣지 못 할 경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일본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의 문장의 길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텔레비전드라마의 특징은 연기자의 대사나 그 대사를 번역한 자막도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듣는 사람이 일본어를 제대로 들었어도 자막과 대조해 보지 않으면 오역의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대로 놓치기 쉽다. 어떤 의미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징이 한국어 오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역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본결과 알 수 있듯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번역자로서는 실격이다. 어학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적용어나 일본문화에 관한 지식의 유무, 그리고 “영상번역의 노하우”의 유무가 번역자의 능력의 유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김순희·박혜경·김철수. 2003. 『韓日·日韓통역·번역의 세계』. 서울: 시사일본어사.
- 황경자. 2000. 「日本文學作品的 한국어 번역에 따른 諸問題-요시모토 바나나의 作品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77-87.
- 池田理知子·灘光洋子外. 2000. 『多文化社會と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東京: 三修社.

### 參考辭典

-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編. 1986. 『朝鮮語大事典 上·下卷』. 角川書店.
- 金學憲編. 1984. 엣센스 『日本語慣用辭典』. 民衆書林.
- goo 辭書. <http://dictionary.goo.ne.jp>.

### 參考資料

- NAVER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 Korea.com. 일본 드라마 클럽JMDC, 동영상 & 자막 제작. "Summer Snow".  
<http://www.google.co.kr>.
- YAHOO 지식검색, <http://www.yahoo.co.kr>.

[Abstract]

## **Case-study of Mistranslations in the Korean Subtitles of the Japanese Soap Opera “Summer Snow”**

Lee' Jwajija  
(Kyung Hee University)

TV and film subtitles instantly appear and disappear on the screen, making it almost impossible to compare the spoken words to the subtitles. Bu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Japanese soap operas can be easily downloaded in Korea. This technology not only offers Koreans easy access to the dramas but also the ability to actively analyze the translations.

Generally Japanese soap operas are translated by amateur translation groups instead of professionals. Errors are often found in their translations.

This paper studied the Korean script of “Summer Snow” to compare the actual dialogue in the opera and the Korean subtitle. It analyzes the patterns of mistakes in vocabulary, idiomatic expressions, styles, cultural background, omissions, and fluency, and seeks to find their causes.

As the translations are discourse-oriented they inevitably reflect the language habits of the TV stars and include many words of foreign origin and newly-coined words, all of which are frequent sources of translation errors.

►Key Words: Japanese soap operas, mistranslations, Korean script, patterns of mistakes, culture, screen